

환하게 비추는 근대유산, 밤에 즐기는 야행에 책까지 '3色'



지난 8일 군산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서 시민들이 미디어아트를 즐기고 있다.

▲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구 군산세관 본관)

지난 8일 개막했던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전국 8곳에서 순차 진행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주관 행사로, 군산이 첫 무대를 장식했다.

올해 주제는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로,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여행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했다.

구 조선은행과 구 일본 제18은행, 구 군산세관 본관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동식 '빛의 자전거'가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30일까지 열린다.

▲ '빛의 거리를 걷다' 국가유산야행

오는 22~23일, 29~30일 두 차례 열리는 '군산야행'은 밤에 즐기는 군산의 대표 문화유산 축제다.

올해는 해방굴이 추가돼 5개 권역·9가지 테마로 확대되었으며, 각 권역에서 해설사 해설,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해방굴 권역에서는 '광복을 향한 독립군 훈련', 공포 테마의 '야담: 항거로 물든 해방굴' 등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가유산미디어아트와 군산야행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활용계(☎0643-454-3923)으로

지난 8일 개막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 등서 다양한 콘텐츠 선봬

올해 군산 국가유산야행 테마 9가지로 확대

군산북페어, 전시·대담·팝업스토어 등 마련

연락하면 된다.

▲ '독서'가 가장 뛰어난 유행이 되다... 2025 군산북페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북페어'도 30~31일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나눔, 보살핌, 출판'으로, 전시·대담·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소설가 김애란과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특별 대담, 문학동네와 협업한 팝업서점 '군산시장(詩場)', 세계의 '노란 책' 전시 '노랑박스' 등이 독자와 출판의 매력을 전한다.

이번 3대 축제를 통해 여름밤을 풍성하게 채우고, 문화·역사·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군산북페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서관관리과 도서진흥계(☎063-454-5632)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난해 열린 군산국가유산야행에서 시민들이 야행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군산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축제가 이어진다.



2025 군산북페어가 오는 30~31일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4 군산북페어에 참가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아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